

목포의 가을은 풍성한 문화행사의 계절

매주 금·토 '청춘연가' 뮤지컬
23~25일 '문화재 대야행'
음악축제·문학여행·무용제
10월까지 뿔뿔한 공연·축제



목포시가 가을 내내 풍성한 문화예술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목포시는 '제22회 세계마당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10월까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근대역사공간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오는 1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요일 근대역사관1관 야외무대에서는 '청춘연가'가 개최된다. 청춘연가는 '목포의 눈물', '오빠는 풍각쟁이야' 등 옛노래의 스토리를 뮤지컬 형태로 풀어내는 공연이다. 23~25일에는 5년 연속 문화재청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대야행'이 막을 올린다. 지난 7월 소야행에 이어 펼쳐지는 대야행은 근대 목포 거리 재현, 공연, 체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제공한다. 30일부터 10월2일까지 갯바위문화타운에서는

갯바위문화타운에 위치한 목포문학관 일원에서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시월애(愛) 목포문학여행'이 운영된다.

목포의 풍부한 문학 자원에 관광을 접목한 문학 관광상품으로 문학을 테마로 프리마켓, 전시, 토크콘서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 프로그램이 매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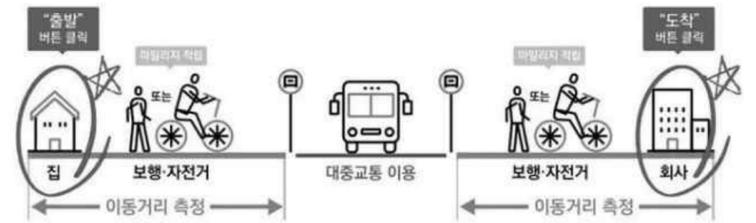
28일부터 10월7일까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단과 무용인이 참가하는 '제31회 전국무용제'가 진행된다.

찾아가는 춤서비스, 세대공감 댄스페스티벌 등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10월14~16일에는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에서 3년만에 '목포항구축제'가 열린다. '청년과 함께 하는 가을파시'라는 주제로 전통파시, 근대파시, 청년파시 등으로 구성된 파시체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앞서 10월13일에는 전야제로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MBC'난영가요제' 축하방송이 진행된다. 대규모 행사 외에도 목포시 전역에서는 '목포항구 버스킹(9월 24일)', '도서관 문화축제(10월 24일)', '생활문화 르네상스 축제(9월 17~18일)', '문화일제 골목길 축제(10월 15~16일)'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계속 이어진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나주시 '최대 30% 절감'...알뜰 교통카드 도입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요금 할인

나주시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탑승 전에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이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해 버스 요금의 20%까지, 월 최대 1만1000원의 현금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별 10%할인혜택이 더해질 경우 최대 30%까지 버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 15회 이상 카드와 관련 앱(APP) 사용 실적이 있어야만 할인·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카드 발급은 신한·우리·하나은행 방문 또는 알뜰교통카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카드를 발급하면 알뜰교통카드 전용 앱(App)을 받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거주지 등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버튼'을 클릭하고 버스 승·하차 후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현금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000~3000원은 350원, 3000원 이상은 450원까지 차등 적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버스 요금을 할인 받고 걸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나주형 대중교통 정책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진군 마량 미항서 8~10일 찰전어 축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강진 마량항에서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마량 미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강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열린다. 개막식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개막식은 식전행사인 마량면 풍물패 공연과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해양구조대 인명구조 시범, 개막 축하공연, 마량미항 노래

자랑, 마량면 풍경화 전시,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체험, 전어 맨손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주대열 찰전어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축제는 제철 맞은 가을 전어와 아름다운 마량 미항의 풍경이 어우러져 축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방문객들이 강진의 매력과 축제의 재미를 즐기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 입장권, 9월까지 20% 할인

기관·단체 등 전 기간 약정 쇄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입장권 구매약정 할인을 실시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가격은 일반 보통권은 성인 1만 5000원, 청소년 1만 2000원, 어린이 8000원으로 책정했다.

구매 약정을 하면 할인을 20%를 적용해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6000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 기간권도 20% 사전 할인에 판매한다.

신청은 2023정원박람회 누리집 내 참여 마당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조직위 수석사업부서 문의하면 된다.

지난 7월 말 노관규 순천시장의 제1호 전 기간

권 구매 약정을 시작으로 순천농협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약정 신청과 문의가 늘었다.

조직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전 시민 대상 전 기간권 갖기 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이다.

천제영 사무총장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구매약정 이벤트로 2023정원박람회가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고 약정 구매로 이어져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받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관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목포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석 명절 이웃과 함께하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권기대)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여 가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60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권기대 지청장과 박춘광사무과장, 이혁영 이사장, 청년운영위원장 임태성 등 지원봉사자들은 범죄피해로 14여년간 장기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가정에 생필품(식료품세트,쌀,라면,김,마스크)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아픈 마음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머지 피해자 및 가족에게는 택배를 이용 전달하고 전화로 안부를 살폈다.

이와 함께 권기대 지청장과 박춘광사무과장, 이



혁영 이사장 등은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인 명도복지관과 동민영아원을 방문해 생필품(쌀,라

면 등)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보성군, 지역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최대 3000만원 지급

보성군이 지역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강화,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가한 보장항목은 ▲뽕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위험후유장해)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12개 항목이다. 보상금은 50만 원부터 3000만 원이다.

보상금이 인상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의사 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이다. 보상 한도액을 기준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역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돼 있는 지역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성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보성군이 전액 납부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